황인홍, 무주군수 도전 선언

〈전 구천동농협 조합장〉

30여명 지지자들과 국민의당 탈당관련 기자회견… 무소속으로 출마

황인홍 전 구천동농협 조합장(사진)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무주군청기자실에서 3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탈당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황 전 조합장과 함께 탈당한 200여 명의 국민의당 당원들은 "내홍에 빠져 지탄의 대상이 된 국민의당을 떠나 무주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굳게 다짐했다"고 입을 모았다.

황 전 조합장은 "새로운 시선으로 군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 당을 떠난다"며 "2년 전 몸담은 당을 떠나니 참담하며 군민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 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해 당의 신뢰는 곤두박질치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로써 이날 국민의당을 탈당한 황 전 조합장은 무주군민과 호흡을 함께하며 위대한 새 무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후보로 무주군수직에 도전하게 됐다.

황 전 조합장은 "이제 국민의당을 떠나 무주시대 정신에 맞게 새롭게 출발하며, 군민의 마음을 싣고 군민과 호흡하며 무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남은 힘을 온전히 위대한 새 무주시대를 여는데 군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진안군,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진안군은 1일 군청 강당에서 이항로 군수와 유근주 부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자치권 보장, ▲주민직접참여권 보장 등이다.

이날 서명운동은 서명 운동의 취지와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서명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장협의회 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전단지를 배부하고, 각종 회의 시에도 홍보하는 등 군민 참여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명은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서명대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자서명도 가능하다.(https://www.1000mann.or.kr) /진안=우태만기자

지역 메아리

'태권도 빛낸 사람들' 추천 접수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3월 30일까지 태권도 수련과 교육·진흥·보급 및 세계화 등에 기여한 태권도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헌액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 대상자는 '교육 및 지도자·선수·특별 헌액'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교육 및 지도자' 부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원 국가의 지도자로 30년 이상 수련 및 20년 이상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선수' 부문은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통해 일정수준의 점수를 취득한 인물, '특별 헌액'은 연구가와 행정가, 언론인, 기업인 등 태권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추천받은 후 선정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kr/) 공지사항 294번이나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063-320-0074)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2월 월례조회 개최

무주군 2월 월례조회가 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시상식 등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읍 조정배 씨(굴천길)와 무풍면 김준식 씨(도마로), 설천면 장기환 씨(내배방길), 적상면 강석항 씨(삼가로), 안성면 정인수 씨(단지봉길), 부남면 배종선 씨(대흥로)가 제설유공자로 선정돼 군수표창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순회 청년 간담회 성료

진안군은 관내 거주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해 계획한 읍·면 청년 순회 간담회를 지난달 31일 진안읍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11개 읍면을 돌면서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8일 부귀면으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청년들의 주요 건의사항은 창업 및 영농자금 마련, 일자리 및 주거 공간, 자녀양육 등 교육, 여가·문화 공간, 다양한 정보 습득 등이다.

군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군 해당부서에 전달하는 한편, 2~3월중 읍·면 청년 임시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진안군 청년 협의체(가칭) 발족하고, 진안군 전체 청년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2017 도로명주소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자율형 건물번호판 사용 등 노력 돋보여

무주군이 도로명주소 업무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를 평가한 것으로, 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제작·사용하고 다가구주택에 상세 주소를 부여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세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호평을 받았다.

이어 등산로 등 비 거주 지역에는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귀감이 되고 있다.

2017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에는 태권도원 인근 무설로 구간에 기초번호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했으며, 도로명주소 무료 변경 등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2천여 건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는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활용 안내도 1만부를 제작해 산골영화제를 비롯한 반딧불축제와 농·특산물대축제 방문객들에게 배포하는 등 밀착형 홍보를 펼치고 있다.

무주군이 도로명주소 업무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제도가 정착하고 군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최병현 과장은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현장행정을 통해 우리 무주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장수군, 2월 1일~4월 20일까지… 논이모작 3월 9일까지

장수군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고,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도 같은 날부터 접수를 개시해 3월 9일까지 받는다.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농지는 쌀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건불리(산서면 제외)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방식은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해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고,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했으나 올해부터는 마을별 자율적으로 조성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에는 지급단가가 밭 고정직불금이 ha당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다. 금년부터 농지임대차 계약기간이 전산입력 필수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자 모집

2월 12일까지

진안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올해 19% 증액하여 총 23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25개 늘어난 836개의 노인일자리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들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국·도비는 70%이며, 군비는 30%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노노케어, 복지시설도우미, 실버자치경찰대, 지역아동센터 돌보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시간은 월 30시간이 한도이며 보수는 월 27만원이다.

진안군은 오는 12일까지 각 수행기관별 사업참여 대상자를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무주군의회가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일정의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첫날 본회의를 개의한 후, 2일과 7일 이해연 의원의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성수 의원의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대표발의를 포함 10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2일부터 7일까지 환경산림과를 시작으로 16개 부서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질의·답변을 통해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유송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고쳐 맨다는 뜻의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추슬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